

“코드로 빛은 시각예술의 향연”… 7인의 미디어 아트

15일부터 ‘코드, 하나의 캔버스’ 내달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다국적 작가 7인 참여…13점 전시 타이포그래피서 우주적 상상까지 “확장된 시각예술 선포…실험적 장”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코드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동시대의 시각언어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픽 아트가 공간을 매운다. 7인의 다국적 참여작가들은 코드(Code)를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닌, 예술적 사유와 매개 언어로 바라보며, 코드가 생성한 이미지를 우리의 정체성과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장치로 확장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아트센터나비와 협력해 전시 ‘코드, 하나의 캔버스: AI시대의 창의적인 그래픽’을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미디어아트, 설치 작품 등 13점이 제3·4전시실과 외부미디어월을 통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두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인 ‘형태로서의 코드(Form as Code)’에서는 피터 조, 밥 파우스트, 잭 리버만, 오미드 네말하립의 작품들이 걸린다. 이들은 글자 배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 제스처 기반 인터랙션, 알고리즘적 반복 구조 등을 통해 코드가 이미지의 형식과 언어의 리듬, 움직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탐색한다.

피터 조의 작품 ‘한글스케이프’는 한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개최되는 전시 ‘코드, 하나의 캔버스: AI시대의 창의적인 그래픽’.

과 영어라는 두 언어가 가진 유사성과 교차점을 투영한다. 이 작품의 한 장면에서는 ‘삶’과 ‘Life’라는 단어가 끝없이 반복되며, 시청자들에게 상호 연결성과 모든 존재의 흐름을 상기시킨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잭 리버만은 이번 전시에서 ‘퓨처 스케치스’를 선보이며 그간 기술적 응용에만 사용되는 도구로 여겨졌던 컴퓨터 코드에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문장의 단어 하나를 옮기면 의미가 바뀌듯, 코드에 대한 작은 수정만으로 매우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서 언어는 물감이면서 동시에 캔버스가 돼 작은

변형과 변화들로 예측하지 못한 패턴을 구현해 낸다.

전시의 두 번째 주제는 ‘시적인 기계’다. 수잔 디트로이, 레나타 아니셰프스카, 카렌 라플뢰르가 참여해 생성 알고리즘, AI 기반 드로잉, 영상 기법 등을 통해 생태 감수성, 우주적 상상력을 탐구한 작품들을 펼쳐냈다. 일부 작품은 G.MAP의 몰입형 공간(제4전시실)과 미디어월에서도 상영돼, 코드 기반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4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는 레나타 아니셰프스카의 작품 ‘당신은 영원히 디스크 리듬 안에 있어요’는 1분30초가량의



레나타 아니셰프스카 작 ‘당신은 영원히 디스크 리듬 안에 있어요’.

무빙 이미지 작품이다. 합성 팝 이미지와 베네치아의 르네상스 문화를 연상케 하는 미술이 결합해 유쾌한 시청각 경험을 선사한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체계였던 ‘코드’가 예술가의 손에서 어떻게 시각적 구조화되고 감성적 언어로 작동할 수 있는지 실현해 냈다. 단순히 데이터를 통제하는 구조를 넘어, 이미지와 정체성을 직조하는 예술의 도구로 기능하는지를 다면적으로 살펴볼 기회이기도 하다.

김희경 G.MAP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AI와 알고리즘 시대에 코드가 어떻게 예술의 감각과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지 선보이는 실험적 장”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망한 미디어아티스트들과 협력해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각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G.MAP은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코딩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아카이브 존과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했다. 개막일인 15일 오후 5시에는 작가 고 휘의 퍼포먼스가 오프닝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전시 관람은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G.MAP 공식 홈페이지(<http://gmap.gwang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문학·미술·음악으로 만나는

헤밍웨이 명작 ‘노인과 바다’

GAC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2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가 문학·미술·음악을 접목한 무대로 꾸며진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네 번째 명작시리즈가 오는 29일 오전 11시 소극장에서 열린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1952년 발표된 작품으로 쿠바의 노어부 산티아고가 84일간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를 낚지만,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명문장처럼 작품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투지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공연은 ‘노인과 바다’의 서사 흐름을 따라 1막 ‘84일’, 2막 ‘육체적 장애’, 3막 ‘청새치와 상어떼’, 4막 ‘인생이여 만세’ 등 총 4막으로 구성된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해설을 맡아 문학적 서사와 음악, 미술을 유기적으로 엮어내 관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상처 입은 사슴’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몸에 화살이 꽂힌 채 고요히 숲을 가로지르는 사슴



어니스트 헤밍웨이 2025 GAC 기획공연 노인과 바다

7.29. 화 11:00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이겨낸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무대를 채우는 음악은 ‘라틴 팩토리’가 담당한다. 라틴음악 특유의 슬픔을 흥겨움으로 녹여내는 이들은 색소포니스트 유종현을 리더로 피아노 손소희, 보컬 홍주혜, 알토 색소폰 김영광, 테너 색소폰 박창훈, 드럼 이기상, 베이스 권태우가 남미와 한국의 정서를 가미한 연주를 들려준다.

이들은 ‘날 사랑해 줄 이 누굴까(Quien Sera)’, ‘모리엔도 카페’, ‘마리아 엘레나’, ‘베사메무초’, ‘브라질풍의 바흐’ 등 다채로운 라틴음악을 선보이며 인간의 고단한 삶, 강인함과 생명력 등을 음악을 통해 들려줄 전망이다.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연일 폭염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인과 바다’는 잠시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전시 공간 전체를 ‘층’으로 꾸미다… ‘설고는 개인전’

24일까지 영등포구 Hall 1
대형 드로잉 53점·회화17점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 설고는 작가의 작품세계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설고는 개인전 ‘Cracks, Ripples, and What Not’이 오는 2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Hall 1에서 열린다.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장작활동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총 53점의 대형 드로잉과 17점의 신작 회화로 구성돼 전통적인 회화 감상 방식에서 벗어난 배치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드로잉들은 얇은 트레이싱지에 옅은 하늘색 선으로 구성된 작품들로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탈색된 듯한 옅은 회색조의 회화 작품들은 바닥의 현무암 블록 위에 설치돼 마



설고는 개인전 ‘Cracks, Ripples, and What Not’ 전경. 독자 제공

치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배치는 전시 공간인 Hall 1 바닥에 실재하는 크랙과 회화의 표면이 서로 호응해 관객에게 회화 또한 하나의 흔적이나 잔해처럼 읽히는 경험을 유도한다.

설 작가는 지난해 9월부터 베니스, 서울,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벽면의 균열, 도로의 틈, 부식된 페인트, 자연에 의한 침식 등 물리적으로 남겨진 흔적들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의 작품들은 상실을 떠올리게 한 건물, 바닥, 돌, 나무 등 거리

곳곳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고 디지털 툴로 편집해 단순화한 뒤, 이를 각각의 ‘층(layer)’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출처와 모양이 다른 층들은 트레이싱지를 경유해 겹쳐져 하나의 화면이 됐고, 화면들은 다시 바닥과 벽을 점유하며 모종의 사건처럼 모였다.

설 작가가 지난 개인전에서 선보인 112점의 연작은 강박에 가까운 회상으로 기억을 붙잡으려는 시도였다면, 이번 전시는 지난 과정에서 느낀 무력함을 인정하고 상실의 남긴 흔적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작가는 “이번 전시는 한 개인의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지나쳐온 시간을 어떻게 회고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전했다.

전시가 열리는 Hall 1의 관람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박찬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지속가능 미래직업 진로탐색 3기’ 모집

내달 1일까지 초등생 3~4학년 대상

국립광주과학관은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미래직업 진로탐색 3기’ 교육생을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13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지속가능 미래직업 진로탐색 3기는 ‘지구를 살리는 미래직업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

들기 위한 미래직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아탐색과 감정지능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검사’를 시작으로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설계하고, 컴퓨터로 데이터 측정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진로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진로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직업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정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선임연구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구와 사람을 함께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힘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미래직업 진로탐색 3기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선착순 온라인 예약 후 참가할 수 있다.

박찬 기자